## 後記

여기까지 모은 것은 一九四三年 여름부터 一九六一年 가을에 이르는 약 十八年間의 三十四點뿐이다。其中 書가 二十六、畵 八點이며 書畵의 順으로 또 各年度順으로 配列하였다。未審한 款記의 判讀에는 田孝準先生께서 많이 도와주셨다。

澗松의 墨蹟은 이 밖에 더 많이 있으리라고 짐작되나 마감날이 迫頭하였음으로 未備한대로 우선 蒐集을 中斷하였다。蒐集子로서 同人諸位의 期待에 謝過를 드린다。(孟仁在)

## 澗松 追悼關係 記事

一月二十八日
東亞日報 訃告
한국일보 訃告
各 新聞 全鎣弼氏急逝(朝刊)
한국일보 私財털어 「文化지기」 二十年(夕刊)
民國日報 「無題錄」欄
一月二十九日
東亞日報 「葆華閣」 지켜온 全鎣弼氏
一月三十日
東亞日報 「橫說堅說」欄
民國日報 民族文化財 지켜온 한平生——作故한 全鎣弼氏의 숨은 功勞
朝鮮日報 澗松 全鎣弼氏 逝去와 文化財 保存紀念事業——金斗鍾
한국일보 澗松 全鎣弼先生을 哭함——金庠基
대한일보 澗松 「전형필」의 逝去를 哀悼함——元忠喜
一月三十一日
서울신문 全鎣弼氏 追悼所藏品紙上展
二月一日
HLKA 追慕對談——金元龍·黃壽永
古美術時報 十二號
民族文化 굳게지킨 澗松功勞 表彰하자

## 澗松先生의 逝去를 哀悼한다

同人 澗松 全鎣弼先生은 一九六二年一月二十六日 巨星이 사라지듯 忽然히 世上을 떠나셨다。澗松이 平生에 貴重히 여기던 것이 古文化財이오 가장 사랑하던 것이 또한 그것이었다。本誌가 새로이 發見되는 古文化財의 資料를 紹介하고자 뜻을 세웠을때 그 計劃에 參與하셨음은 勿論 創刊以來 執筆에 出版에 編輯에 온갖 精力을 기울여 苦樂을 같이하셨다。좀처럼 붓을 들지 않으시던 澗松이 本誌에만은 每號 빼놓지 않고 執筆하셨고 本誌題號로 쓸 秋史體 筆蹟을 集字할때 새벽 三時에 이르기까지 한字가 發見되지 않음으로 家族들이 잠든뒤라 부엌에 내려가 술을 데워 療飢해가면서 찾아낸 다음 비로소 安心하고 잠이 들었다고 이야기하시던 喜悅에 찬 語調는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澗松의 本誌에 關한 일이라면 가장 關心이 크셨고 每號마다 發見되는 新資料에 對하여도 細心히 觀察하셨고 出版될 때마다 字體의 크기 誤字의 指摘、表紙의 配置等 일일히 修正하셨으니 마치 어린 자식의 옷깃을 바로 잡아주듯 하였다。病院에서 意識이 混迷한 가운데도 同人들에게 本誌의 出版을 念慮하셨으니 本誌는 澗松이 온갖 精誠을 기울이던 것 中의 하나이었다。